

# 나주 호혜원 주민 71년만에 새 보금자리 마련

### 옛 산포초교 신도분교로 이사... 50세대 규모 주택 건립키로 진료·편의시설 갖춰... 혁신도시 약취 해소 정주 여건 개선

나주 한센인 정착촌 '호혜원' 마을 주민들이 이사를 간다. 호혜원 주민들의 이주지가 결정돼 설계를 비롯한 거주주택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지난 1946년 4월 정착한 이후 무려 71년 만이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 호혜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거주지를 확충, 본격적인 이주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나주시는 산포면 새벽길 옛 산포초교 신도분교(1만1107㎡)를 호혜원 주민들의 이주공간으로 사들여 50세대 규모(9동)의 간이양로주택을 건설키로 하고 설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고품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 주택 건립 과정에 반영했고 주민편의시설과 진료시설도 갖추게 된다.

시는 앞서 전남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15억원에 매입한 뒤 설계업체를 선정, 주변 경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호혜원 주민들은 나주시와의 축산업 폐업 합의 이후 거주지가 사라질 경우 일상 생활에서 겪게될 부적응, 일반인들의 부정적 시각 등을 고려해 어울려 살아갈 공간을 마련해달라며 나주시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잘못된 편견과 비위생적 주거환경에서 고통받아온 점을 감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따왔다.

정부와 나주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국비(25억)와 시·도비(25억)를 투입해 간이양로주택을 건설해 제공키로 하고 부지 확보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나주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설계와 경관 심의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역민들 안팎에서는 호혜원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공사와 호혜원 약취 대책이 추진될 경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 2000년 역사 속으로 다음달 마한문화축제

### 금동관 출토 100년 기념 9월 22~24일 개최 퍼레이드·뮤지컬 등 다채 국제학술대회도 열어

2000년 마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제3회 마한문화축제'가 열린다.

나주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국립나주박물관 일대에서 '금동관, 마한의 빛이 되다'를 주제로 '제3회 마한문화축제'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축제는 마한 역사·문화를 재조명, 마한유적의 중심지인 나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특히 나주시는 '국보 제 295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출토 100년을 기념해 대형 금동관과 마한시대 마차를 재현한 대규모 마한 퍼레이드를 선보여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축제를 계기로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마한인의 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국 마한인 춤 경연대회', 마한 문화·

역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마한인형 뮤지컬', 마한어린이 재롱잔치 등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한인 어울마당, 마한 의상 입지 사흘간 국립나주박물관 일대에서 '금동관, 마한의 빛이 되다'를 주제로 '제3회 마한문화축제'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축제는 마한 역사·문화를 재조명, 마한유적의 중심지인 나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특히 나주시는 '국보 제 295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출토 100년을 기념해 대형 금동관과 마한시대 마차를 재현한 대규모 마한 퍼레이드를 선보여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축제를 계기로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마한인의 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국 마한인 춤 경연대회', 마한 문화·

행사 첫날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등을 통해 마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주시 반남면과 영암군 시종면 등 영산강 일대는 마한시대에 조성된 다수의 고분군과 함께 국립나주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백제 이전 마한 문화가 꽃피었던 중심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000년 역사문화의 재조명하는 마한문화축제가 나주의 정체성을 찾고 시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지난해 축제에서 마한시대 54개 소국을 상징하는 주민대표 54명이 색색의 복장을 입고 다양한 모양의 깃발과 솟대를 들고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즐기세요

### 나주시 문체부 공모 선정 '투게더 스포츠 클럽' 운영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나주시는 시민에게 수준 높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나주시 투게더(Together) 스포츠클럽'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나주시와 동신대 생활체육학과가 공동 지원해 선정됐다.

축구, 골프, 배드민턴, 농구, 수영 등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5개 종목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이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동신대(축구, 골프, 배드민턴), 나주종합스포츠파크(축구, 수영), 빛가람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축구, 농구) 등 3개 거점을 중심으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설이용과 레슨비용 등은 종목에 따라 월 2만원에서 7만원 수준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스포츠를 접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이익금 보니... 무려 5800억대

### 나주시, 시행 3사 대상 행정심판 승소... 690억 부과키로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서 혁신도시 개발이익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취하고도 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으려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오면서 시행사측 대응이 주목된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 사업시행 3사를 대상으로 한 732억5900만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사업 시행 3사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반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낸 바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것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5861억원으로 추정했다.

토지 매입에 들어간 비용 1764억과 개발비용으로 9720억원을 추산, 최종 땅값을 1조8272억원으로 판단했고 지가 상승분을 93억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LH 등 시행 3사가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 50% 감면 혜택을 인정해 12.5%인 732억59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게 나주시 입장이다.

시행 3사는 이에 반발,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토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주시 손을 들어줬다.

다만, 중토위는 시행 3사가 주장한 임대주택과 이주자 택지 부분의 경우 국민 주거 안정시설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는 받아들여 부담금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나주시는 이에따라 732억5900만원에서 32억원을 뺀 690억원으로 수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 3사는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도 일부를 지역사회에 내지 않으려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